

#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2025년 1/4분기 울산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

\*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2025년 1~2월 중 울산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53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최근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파악한 울산지역 경제상황을 서술한 것임.

- 2025년 1/4분기 울산지역 경제활동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조업 생산) 석유정제·화학제품의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조선은 소폭 개선
  - (수요) 소비활동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건축착공면적과 토목건설 수주가 둔화된 반면, 주력산업의 설비투자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 2025년 1/4분기 울산지역 경제동향 1부.

<별첨> 2025년 1/4분기 동남권 경제동향 1부.

문의처 :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신준식, 조사역 안주현, 이선우, 조세영

Tel : (052)259-7423 Fax : (052)259-7491 E-mail : ulsaneco@bok.or.kr

“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ulsan>)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붙임)

I

## 2025년 1/4분기 울산지역 경제동향

- 지역 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로서, 한국은행 등이 추후 발표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황

1. 2025년 1/4분기 중 울산지역의 경제활동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다. 제조업은 석유정제·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조선업은 소폭 개선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운수업은 육상과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둔화되었다.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파악한 소비활동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상업용 건축착공과 토목건설 수주가 감소하였다.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정제·화학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설비투자는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 부문별 동향

2. (자동차 제조업) 글로벌 수요 둔화, 美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전체로는 업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4분기에는 미국의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한 대응, 인기차종의 신차출시 등에 힘입어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계와 주요 전망기관<sup>1)</sup>에서는 2025년 국내 자동차 생산이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조정,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1/4분기 자동차 생산은 연간 흐름과 달리 대체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sup>2)</sup>된다. 이는 4월로 예고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와 일부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결과 일부 완성차업체들은 관세부과 개시 이전에 생산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1/4분기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기차종인 현대자동차 신형 팰리세이드 출시(1월)는 3월 이후 본격적인 생산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up>3)</sup>.

한편 1~2월 중 울산지역의 자동차 수출액(일평균)은 전분기대비 2.8% 감소(전년동기대비 -9.3%)하여 수출과 생산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전국 자동차 수출 추이<sup>4)</sup>에 비추어 볼 때, 울산지역 자동차 수출도 3월 들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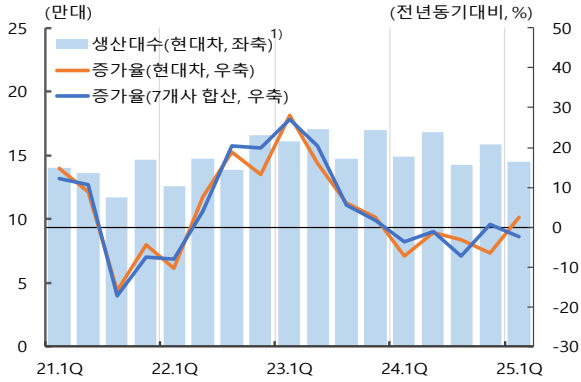
1) S&P Global Mobility(「Global Sales and Production Commentary, 2025.2월」)는 2025년 우리나라의 국내 자동차 생산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1~2월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대수 증가율(2024.4/4분기 -6.6% → 2025.1~2월 +2.5%, 전년동기대비),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3) 신형 팰리세이드는 높은 사전예약 실적(1월까지 약 4.5만대)을 기록하였다. 다만 동 차종 생산을 위해 1월말~3월초 기간중 울산2·4·5공장의 설비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산증대 효과는 3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전국<울산> 자동차 일평균 수출 증가율(부품제외, 전년동기대비): 1월 -3.5%<-12.3%> → 2월 +9.7%<+0.1%> → 3월 1~20일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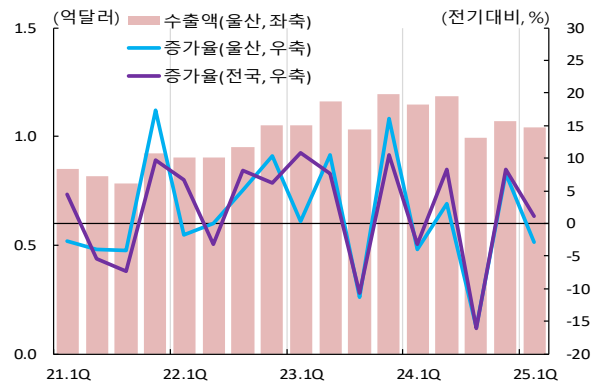
[그림 1] 자동차 국내 생산대수<sup>2)</sup>



주: 1) 월평균 생산대수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림 2] 자동차 일평균 수출액<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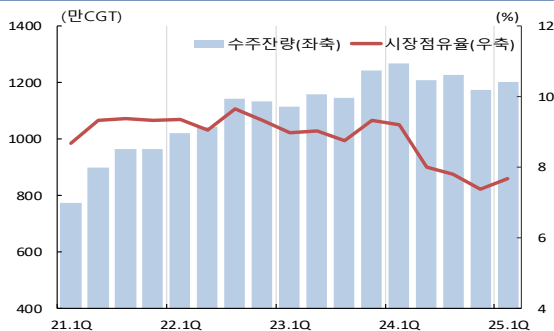


주: 1)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조선업) 수주잔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선가 지속, 인력부족 완화 등으로 소폭의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주요 조선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수주잔량은 2월말 기준 각각 9.3백만CGT, 2.7백만CGT를 기록하며 약 3년치 생산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며, 올해 연간목표 대비 수주달성률이 1월에 이미 23.2%를 기록하는 등 신규수주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감이 충분한 가운데 신조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3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sup>5)</sup> 등에 힘입어 인력부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부터 울산형 광역비자<sup>6)</sup> 시범도입과 연계한 우즈벡 등의 현지 교육센터 운영이 개시되는 점도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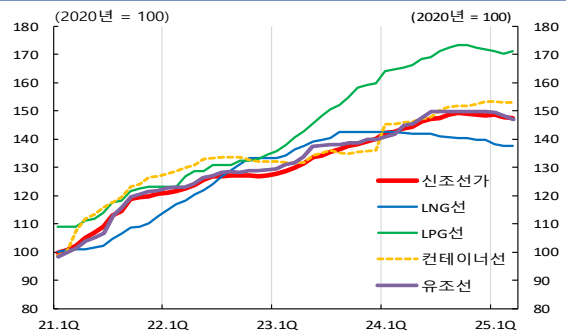
[그림 3] 울산지역 조선업체 수주잔량<sup>1)2)</sup>



주: 1) HD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기준  
2) 기말 기준, 2025년 1/4분기는 2월말 기준

자료: Clarksons

[그림 4]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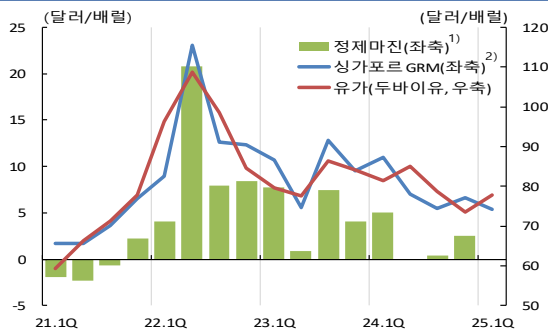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5) 기업별 외국인력 허용비율 상향,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 및 조선업 쿼터 신설, 외국인연수생(D-4-6)의 숙련기능인력(E-7) 비자 전환 제도 신설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에로 해소방안, 2023.1.6.」)  
6)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의 대상·체류자격·활동범위 등을 설계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4. (석유정제업) 불리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의 낮은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이 1~2월 중 5.4\$/b으로 전분기(6.6\$/b) 대비 18.0% 하락하였으며, 여기에서 정유업체들의 운영비용을 차감한 자체 정제마진은 대체로 손익분기점(4~5\$/b)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향후 주요 석유정제업체들은 정제마진 움직임 등 수익성 개선여부에 따라 가동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2월 중 울산지역 석유제품 수출액(일평균)은 전분기대비 큰 폭(+13.0%) 증가하였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전분기(-21.2%)에 이어 14.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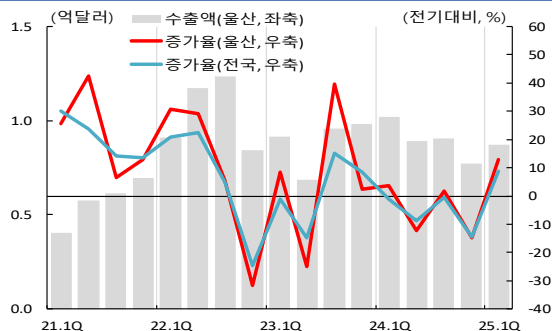
[그림 5] 정제마진<sup>3)</sup>



주: 1) 에스오일 자체 정제마진(싱가포르GRM-운영비용)  
2)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Gross Refining Margin)  
3)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Bloomberg, S-Oil IR(2024.4/4)

[그림 6] 석유제품 일평균 수출액<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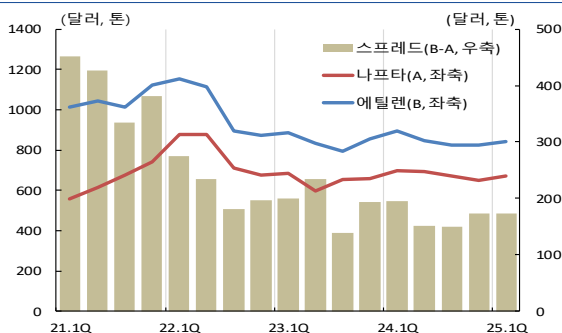


주: 1)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석유화학업) 글로벌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업황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분기 수준의 생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가격)는 올해 2월 기준 187.7\$/MT(월평균)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250~300\$/MT)을 상당 기간 하회하고 있다. 다만 향후 러·우전쟁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제한이 해제 될 경우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다소 개선<sup>7)</sup>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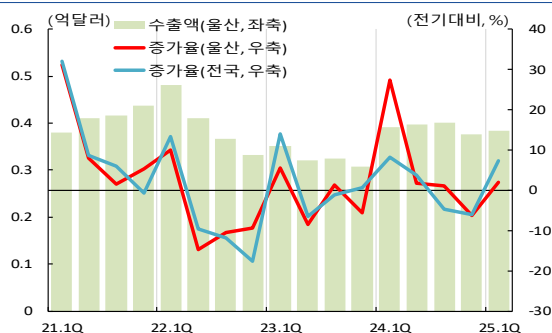
한편 1~2월 중 울산지역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일평균)은 전기대비로는 소폭(+1.9%) 증가하였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9% 감소하였다.

[그림 7] 에틸렌 스프레드<sup>1)</sup>



주: 1) 에틸렌 가격 - 나프타 가격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8] 석유화학제품 일평균 수출액<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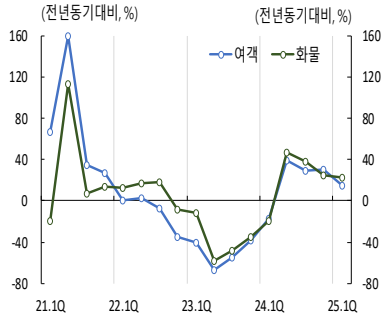


주: 1)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제한에 대응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원유 및 나프타를 공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석유화학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졌다. 러·우전쟁 종전으로 수입제한이 해제 될 경우,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재개하여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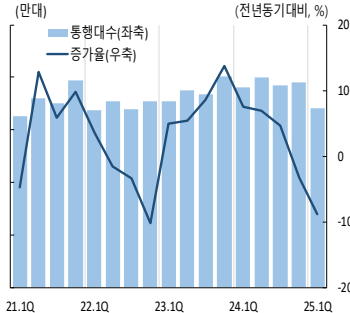
6. (운수업) 항공 운송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육상 및 해운 운송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1~2월 중 울산공항 여객수와 화물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9% 및 22.1% 증가하여, 전분기(여객 +29.8%, 화물 +25.2%)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1~2월 중 울산지역 고속도로 화물차 통행량<sup>8)</sup>은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하며 전분기(-3.2%)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1월 중 울산항 물동량도 전년동기대비 14.2% 감소하며 전분기(-1.6%)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9] 울산공항 이용량<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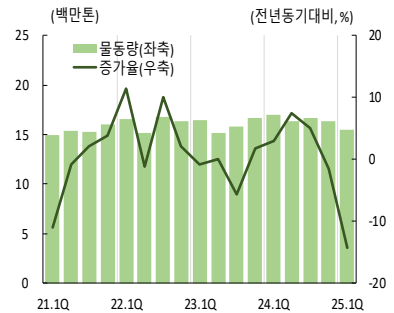
주: 1) 월평균 이용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그림 10] 울산지역 고속도로 통행량<sup>1)2)</sup>



주: 1) 월평균 통행량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도로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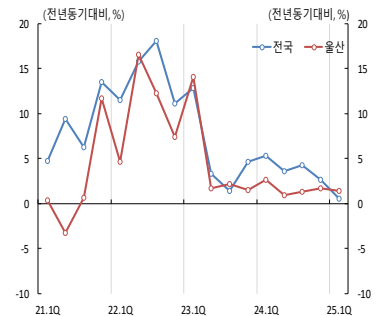
[그림 11] 울산항 물동량<sup>1)2)</sup>



주: 1) 월평균 물동량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1월 기준  
자료: 울산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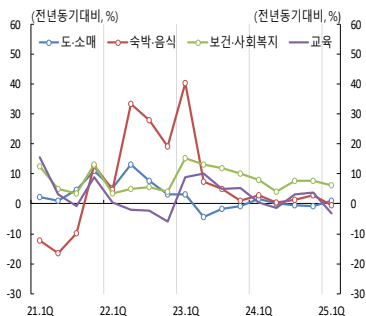
7. (소비) 신용카드 매출액<sup>9)</sup>으로 파악한 소비활동은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sup>10)</sup>의 영향으로 약보합세<sup>11)</sup>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2024.4/4분기 -0.8% → 2025.1~2월 +1.0%,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대형마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문소매업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품목별<sup>12)</sup>로 보면, 식료품 등 비내구재, 레저용품 등 준내구재가 전분기에 비해 개선된 반면, 가구·가전 등 내구재는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업(+2.8% → -0.3%), 교육서비스업(+3.6% → -3.2%), 보건·사회복지업(+7.6% → +6.3%) 등 서비스 소비 관련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신용카드 매출<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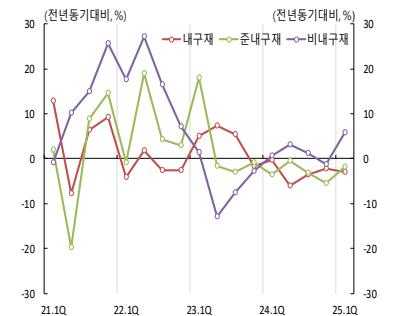
주: 1)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지역인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액  
2) 2024년 결제액 기준 상위 4개 업종

[그림 13] 주요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sup>1)2)3)</sup>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농협·신한·하나카드

[그림 14] 재화 종류별 신용카드 매출<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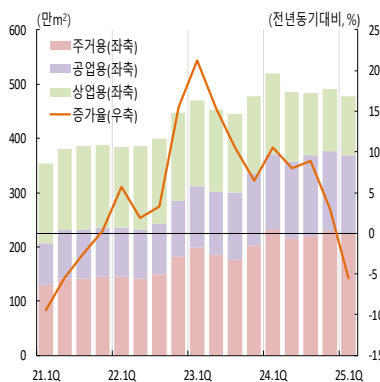


8) 울산지역 내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 통행량 기준이다.(한국도로교통공사)  
9) 국내 신용카드 3사(농협, 신한, 하나)의 신용카드 결제액 기준이다. 2019년 1/4분기~2024년 4/4분기 중 울산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불변지수, 전년동기대비)과 역대 서비스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간의 상관관계수는 0.77로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10) 울산지역 소비자심리지수(월평균): 2024년 3/4분기 102.8 → 4/4분기 96.5 → 2025년 1~2월 91.9  
11) 1~2월 중 울산지역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며 전분기(+1.7%)보다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12) 재화 종류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내구재] 2024.4/4분기 -2.2% → 2025.1~2월 -2.9% [준내구재] -5.5% → -1.8%, [비내구재] -1.2% → +5.8%

**8. (건설투자) 건축착공면적이 전분기대비 감소하고 토목건설 수주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기준 누적(36개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여, 전분기(+3.1%)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다. 용도별로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3.8%)과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27.1%)의 착공이 감소한 반면, 공장 등 공업용(+4.6%) 착공은 증가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7.2%)과 공공(-7.2%) 부문 모두 착공이 감소하였다. 1월 기준 누적(72개월) 토목건설수주금액도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하며 전분기(-0.1%)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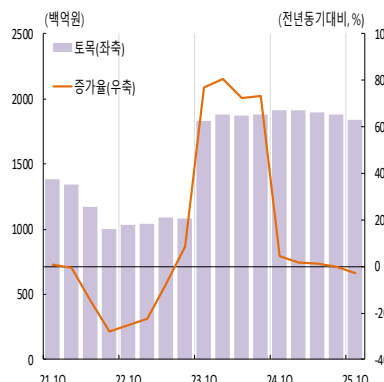
**9. (설비투자)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정제·화학업은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sup>13)</sup>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전분기에 대규모 설비도입이 이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1/4분기 중 설비투자 규모는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은 2023년말 착공한 전기차 전용공장<sup>14)</sup>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전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실행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차전지 제조업은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라인과 양극재 생산공장 증설이 본격화<sup>15)</sup>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025년 1~2월 중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89로 전분기(86)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15] 건축착공면적<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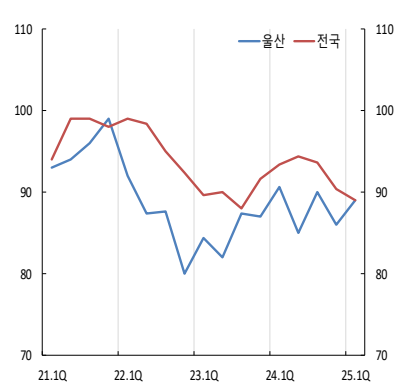
주: 1) 36개월 누적 착공면적  
2) 2025년 1/4분기는 1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16] 토목건설수주금액<sup>1)2)</sup>



주: 1) 72개월 누적 수주금액  
2) 2025년 1/4분기는 1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17] 제조업 설비투자 BSI<sup>1)2)</sup>



주: 1) 월평균 BSI 기준  
2) 2025년 1/4분기는 1~2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13)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3조 규모의 설비투자인 사힌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 기준 공정률은 약 55%를 기록하였다.  
14) 현대차는 약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5년 2월 기준 공정률은 약 84%를 기록하였다. (2024.7월 44% → 11월 68% → 2025.2월 84% → 2026년<sup>e)</sup> 양산)  
15) 삼성SDI의 5,000억원 규모 LFP 배터리 및 ESS 생산라인 증설과 양극재 생산공장 증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2026년<sup>e)</sup> 양산)

<별첨>

II

2025년 1/4분기 동남권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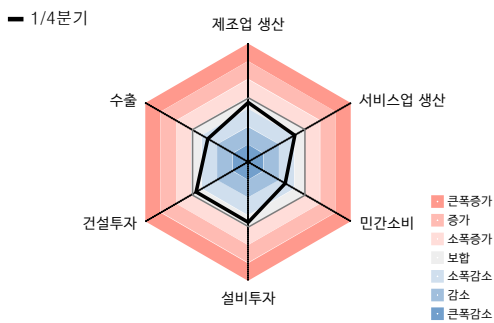
(1) 개황

동남권 경기 소폭 둔화

2025년 1/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2024년 4/4분기보다 소폭 둔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서비스업이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의 경우 설비투자 와 건설투자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민간소비와 수출은 소폭 감소하였다.

1~2월 중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폭이 소폭 확대되었고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다.

경기 레이더<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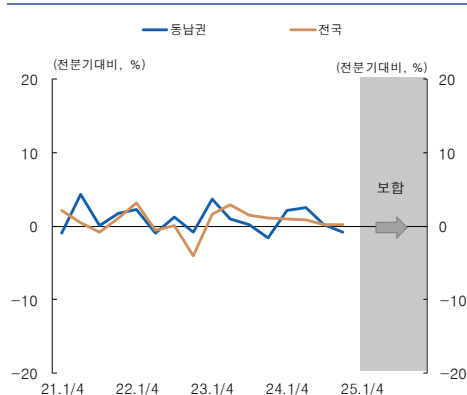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산

제조업 생산 보합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철강 및 금속가공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기계장비가 감소하였다. 석유정제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조선은 LNG 연료 선박을 중심으로 신규수주가 늘면서<sup>16)</sup> 증가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선박기자재를 중심으로 증가<sup>17)</sup>하였다.

16) 2025년 1~2월 중 동남권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량(월평균)은 63만CGT로 전분기대비 17.5% 증가하였고, 이중 94%는 LNG 연료 선박이다.(Clarksons)  
 17) 1월 중 철강 생산량은 2024년 4/4분기(월평균) 대비 1.0% 증가하였다.(한국철강협회)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은 생산라인 조정을 위한 설비공사와 공장 가동 중단<sup>18)</sup>으로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은 중국 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국내 업황이 부진하여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도 글로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sup>19)</sup>하였다. 한편, 석유정제는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으나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낮은 정제마진으로 가동률이 하락하며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sup>20)</sup> 수주잔량이 전분기대비 확대<sup>21)</sup>되어 당분간 생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 참여 확대<sup>22)</sup>가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설비공사 완료에 따라 신차를 중심으로<sup>23)</sup> 생산 확대가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정제의 경우 정제마진 반등<sup>24)</sup>으로, 기계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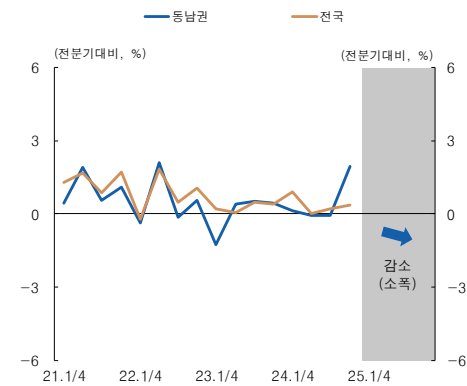
- 18) 현대자동차는 금년 1월 출시한 신형 팰리세이드 생산을 위해 1/4분기 중 울산 2·4·5공장의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르노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1월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 19) 1월 중 공작기계 생산은 1,429억원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26% 감소하였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 20) 정부는 지난 2023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체별 외국 인력 허용 비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 21) 2월 말 동남권 조선업체가 2029년까지 건조 예정인 선박 수주 잔량(2,789만CGT)은 전분기(11월 말)보다 6.3% 증가하였다.(Clarksons)
- 22) 미국은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30년간 364척의 신규 함정을 건조할 예정이며, 금년 3월에는 노후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MRO)를 위해 동맹국이자 최신 조선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23)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설비공사 이후 2/4분기부터 신형 팰리세이드의 본격적인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4)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1월(일평균) 기준 배럴당 2.1달러에서 2월 3.3달러, 3월(1~17일) 4.7달러까지 상승했다.

는 1/4분기 중 수주량 증가<sup>25)</sup>로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보합 수준이 예상된다.

###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은 감소하였다.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0)</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도·소매업은 설 연휴 판촉행사 확대 등으로 인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sup>26)</sup>

- 25) 1월 중 공작기계 수주는 전분기(월평균) 대비 2% 증가하였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 26) 1월 중 동남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불변)가 전분기(월평균) 대비 30.8% 증가함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11.0% 증가하였다.(통계청)



반면 운수업은 항만 물동량<sup>27)</sup>이 증가하였으나 내륙 물동량<sup>28)</sup> 및 항공 여객 수송<sup>29)</sup>이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도 높은 외식물가,<sup>30)</sup> 평년 대비 낮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부동산업은 계절적 비수기,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등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둔화하며<sup>31)</sup>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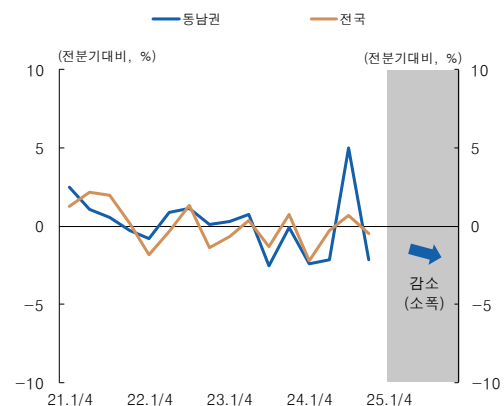
운수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sup>32)</sup>의 영향으로 이번 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도 미분양 주택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업황 개선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3) 수 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매판매액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자동차 소비가 줄면서<sup>33)</sup>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준내구재의 경우 의복 구입이 증가하였으나 직물 소비가 줄어들면서<sup>34)</sup>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내구재는 차량용 연료와 음식료품 판매가 늘어나면서<sup>35)</sup> 소폭 증가하였다.

- 27) 1월 중 부산·울산·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4.1% 증가하였다.(해양수산부)
- 28) 1~2월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 수는 전분기(월평균) 대비 10.7% 감소하였다.(한국도로공사)
- 29) 김해·울산·사천 공항의 여객 인원은 전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6.1% 증가하였으나, 금년 1~2월 중에는 전분기(월평균) 대비 6.5% 감소하였다.(한국공항공사)
- 30) 2월 부산, 울산, 경남지역 외식물가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7%, 2.2%, 2.8% 상승하여 전체 물가상승률(각각 2.0%, 1.8%, 1.9%)을 상회하며 5개월 연속 외식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다.
- 31) 1월 중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32.8% 감소하였다.(한국부동산원)
- 32) 전분기(월평균) 대비 1~2월 평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부산(-4.2p, 105.7 → 101.5), 울산(-0.2p, 104.7 → 104.5), 경남(-2.8p, 107.3 → 104.5) 모두 하락하였다.(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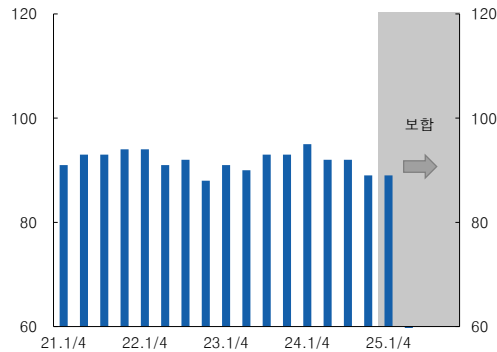
- 33) 1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판매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33.0% 감소하여 전분기(-31.0%)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 34) 1월 중 동남권의 의복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직물은 1.8% 감소하였다.
- 35) 1월 중 동남권의 연료 및 음식료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각각 12.1%, 16.2% 증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의료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여행, 교육서비스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sup>36)</sup>

### 설비투자 보험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기계장비에서 증가하였으나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이 감소하였다. 철강·비철금속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설비투자실행 BSI<sup>1)</sup>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는 전기차공장 건설<sup>37)</sup> 지속 및 설비보강 공사 등으로 증가하였고, 조선 및 기계장비 역시 조선 경기 호조<sup>38)</sup>가 이어지면서 증가하였다. 한편 석유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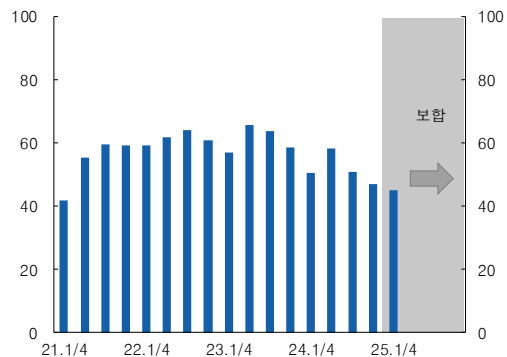
36) 1월 중 동남권의 의료기관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분기(월평균) 대비 3.0% 증가하였으나, 여행 및 학원은 각각 1.5%, 4.6% 감소하였다.  
37) 현대차는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 중이며, 2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84%를 기록하였다.  
38) 한화오션은 유지보수정비(MRO) 신조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4분기까지 1,087억원의 설비투자를, 한화엔진은 선박엔진 생산설비 신설을 위해 2026년 3/4분기까지 802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및 석유화학은 대형 투자 프로젝트<sup>39)</sup>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분기 대규모 설비 도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비철금속의 경우 전분기 수준의 설비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설투자 보험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 착공면적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고<sup>40)</sup> 건설수주액도 소폭 증가하였다.<sup>41)</sup> 다만 미분양주택이 누증<sup>42)</sup>하고 건축허가면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sup>43)</sup> 전반적인 건설투자는 보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업황BSI<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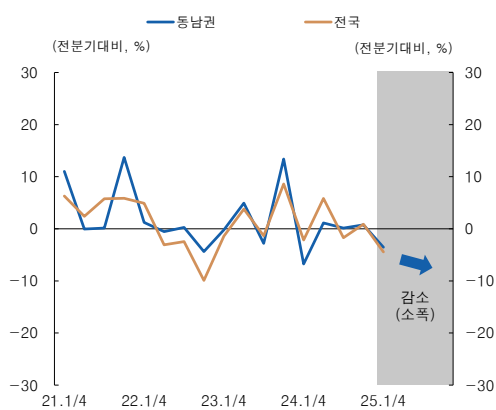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39)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한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2월 말 기준 공정률은 약 55%를 기록하였다.  
40) 1월 중 동남권의 누적 착공면적 증가율(% 전분기대비, 36개월 누적)은 0.5%이며,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은 1.3% 증가하였고 비주거용은 증감이 없었다. 주체별로 보면 민간과 공공이 각각 0.5%씩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41) 1월 중 동남권 누적 건설수주액(36개월 누적)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42) 2024년 12월 말 동남권의 미분양주택은 14,198호,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4,682호로 각각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국토교통부)  
43) 동남권의 누적 건축허가면적 증가율(% 전분기대비, 36개월 누적)은 전년 4/4분기 -2.8%에 이어 1월 중 -1.7%를 기록하였다.(국토교통부)

## 수출 소폭 감소

1/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44)</sup>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선박, 기계(수송기계 제외), 철강금속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수출(일평균)<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석유제품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유 및 휘발유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미국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설비보강을 위한 조업일수 단축<sup>45)</sup>과 전기차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선박은 4/4분기 수출 물량 호조의 기저효과로 감소하였다.<sup>46)</sup> 기계(수송기계 제외)는 미 통

44) 1~2월 중 동남권의 수출액(일평균, 5.3억달러)은 전분기(5.6억달러) 대비 4.3%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45) 르노코리아는 1월 중 전기차 양산을 위한 부산공장 설비보강 공사를 진행하였다.  
46) 1~2월 중 동남권 선박(MTI 7461) 수출액(일평균)은 0.70억달러로 전분기(0.75억달러) 대비 6.7% 감소하였으나, 2021~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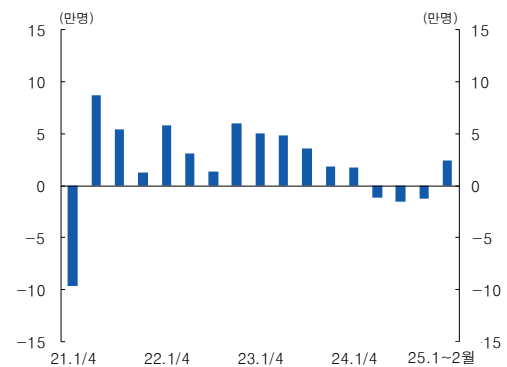
상정책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 철강금속제품도 전분기부터 지속된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 (4) 고용

### 취업자수 증가 전환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2.4만명 증가하며 전년 2/4분기 이후 3분기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감소 전환하였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제조업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취업자수 감소폭은 확대되었으나 경남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울산은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취업자수 증감<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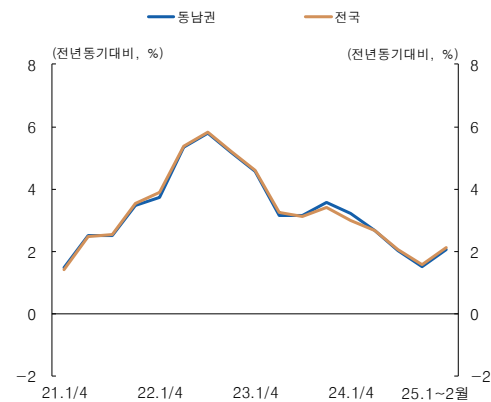
중 평균(0.54억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 소비자물가 상승폭 확대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1%로 전분기(1.5%)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공서비스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 전환(-6.5% → 1.9%)한 데 기인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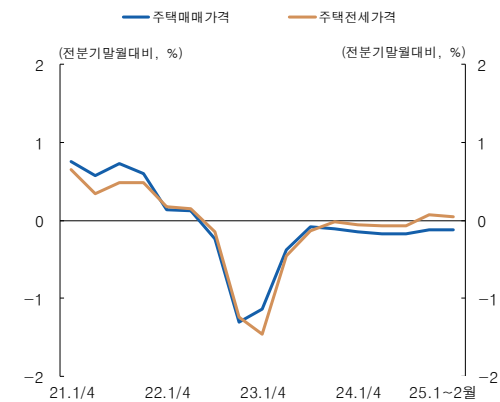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소폭 확대 및 전세가격 상승폭 다소 둔화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12% 하락하여 4/4분기(-0.1%)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경남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며 울산은 전분기 말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택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1~2월 중 86.1로 전분기(86.9)보다 하락해 매도우위 흐름이 강화되었다.

한편 전세가격은 전분기말월대비 0.05% 상승하여 4/4분기(0.07%)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

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 경남은 상승폭이 감소(0.07% → 0.00%)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말 기준. 단, 표본재설계 이전인 2021.6월까지의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